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하기락의아나키즘론

구승회

구승회  
하기락의아나키즘론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 차례

1. 글머리에	3
2. 만남	4
3. 하기락과 그시대	5
4. 1930 - 40 년대한국아나키즘과하기락	7
5. 해방후의활동과 '자주인철학'의정초	8
6. 하기락의 책만들기	11
7. 결별: 새시대의아나키즘을위하여	15
8. 결어	17

## 1. 글머리에

글쓰기에 앞서 필자는 두 가지 제한 사항을 먼저 말하고 싶다. 우선 이 논문은 사람에 대한 연구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그 목소리가 아직 역사로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연구이다. 사람이면 누구든 자신의 다양한 관심과 활동, 요구와 주장으로 자신의 일생을 채운다. 이중에는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요구와 주장들도 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저편의 이익관심 interests 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도 자신의 이해의 지평위에 그려진 사람만 알면서도 우리는 잘 안다고 말한다. 이는 어쩌면 해석학적 딜레마 hermeneutische Dilemma 인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허유 (虛有 - 고故하기락교수의호) 하기락교수의 아나키즘 사상을 조금 알고 있을 뿐, 그의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독자가 하기락교수의 아나키즘 사상에 대한 필자의 서술이 그의 다른 분야에 대한 이익관심과 상충하거나 모순된다고 보여지더라도 필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해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 두고자 한다. 예를 들면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인식론'에 대한 하교수의 해석이 아나키즘 연구에 어떤 영향으로 남아있으며, 도체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든지...

두 번째로 이 논문은 하교수의 철학적 논변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함이라 아니라, 우리에게 '불길한 미완'으로 보이는 한 인간의 사상적 면모를 해명하려는 것이므로 철학적 엄밀성보다는 역사적 사실 관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다소나마 철학적 글쓰기에 익숙한 필자로서는 이 글이 아무래도 논문답지 않게 될 거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필자로서는 단순히 사료에 대한 역사서술자의 평가만 고집하는 실증적인 사가가 되고 싶지는 않다. 역사적 사실은 현재와 부단히 대화하고 있으며, 그 대화 사이를 이어주는 논리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깊이 추적해 보고자 한다. 더욱이 연구 대상인 하교수는 '아나키즘적 실천'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실천과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역사적 해석' 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노력할 것이다.

'사실史實과 현재와의 관계지음'은 어떤 경우도 매개자가 필요한 법인데, 필자는 그런 중개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필자의 '사적인 담화'가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 글은 기왕의 논문 쓰기 형식을 탈피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 2. 만남

필자는 1993년 5월 대구 신천동에 있던 회의실에서 필자와 박연규 씨를 중심으로 결성한 《대구 아나키즘 연구회 (이하 '대구 아연'으로 칭한다)》<sup>1</sup>의 창립 월례 발표회에서 〈맑스인가, 바쿠닌인가?— 제 1 인터내셔널과 유럽 노동운동의 이념 투쟁〉<sup>2</sup>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그날 15명 정도의 회원이 참석하였는데, 검정색 뺑모자에 가방을 비껴 맨채, 약간 굵은 지팡이를 짚고 들어서는 노인이 있었다. 그가 바로 하기락 교수였다. 필자는 그날 하기락 교수를 처음 대면했다. 82(1993년 당시) 세의 노인이라기에는 너무나 건강해보였다.

발표가 끝나고 토론 시간이 되자, 하 교수는 누구보다도 많은 말을 했다. 젊은 토론자들을 제치고 혼자서 논증하고, 결론 내리고 하였다. 지금 고백하건대 성미 급한 나로서는 주리가 틀리는 자리였다. 그 후로도 필자는 하 교수가 등장하는 자리에선 언제나 비슷한 경험을 했다. 1995년 8월 서울 동숭동 국민문화연구소에서 개최된 연례 폐회 시간을 넘기고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자, 듣다 못한 노철학자 유명종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는 “저영감이 아무래도 노망이 들었어! 그만하고 내려와!”라고 짜증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과의 인연으로 하 교수와 만나게 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아나키즘 운동사에 관한 많은 살아있는 지식을 얻게 된 데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필자는 독일 유학 시절 직업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여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 학도였기 때문에, 아나키즘이라면 조직적인 혁명 운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평하는 자유주의자’ 정도를 이해하고 있던 나로서는, 독일의 직능 공동체 운동의 이념적 기초가 아나키즘임을 알고 감이 놀랐던 적이 있다. 아나키즘에 대한 이런 인연으로 귀국 후 아나키즘 연구 단체를 만들자는 제의에 쉽게 동조하게 되었다.

하여튼 필자가 서울로 이주하고, 박연규 씨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대구 아연》은 1994년 여름 이후 사실상 활동 중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하 교수는 그간 10여회의 월례 발표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며, 《대구 아연》과 《부산 아연》의 든직한 중심이었다.

<sup>1</sup> 필자보다는 박연규 씨가 하기락 선생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듯싶다. 나는 선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만으로는 주문을 받은 적은 없고, 주로 박연규 씨로부터 전해 들은 입장이었다. 월례 발표에 꼭꼭 참석한 사람은 구승희, 김상은, 김진철, 박연규, 송재학, 윤용택, 이강대, 임해수, 정상봉, 조기현, 최찬식, 하기락, 등이었다.

<sup>2</sup> 이 글은 나중 구승희/김성국 외, 『아나키, 환경, 공동체』, 서울: 모색출판사 1996 예수록되었다.

고 말하고자 한다. 하이데거 (M. Heidegger) 의 멋진 부연 설명을 기억하며, 한 마디 더 첨가하면; ‘고향은 실존을 그리워하는 현존의 가상 현실’이며, 이는 아나키즘을 통해 복원될 수 있으며,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그리움을 아나키즘의 이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아마 거기에 선 아침에 낚시하고, 오후엔 발을 갈고, 저녁엔 무도회나 나가서 춤을 추고, 늦은 밤엔 교양 있는 이웃과 철학을 토론하는 그런 곳일 것이다. 마르크스가 희망했던 것과 아주 똑같이 … 그러나 아나키즘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그런 공산사회 (마르크스) 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 받는 ‘자유 사회’ 일 것이다. 이제 나는 아나키즘의 이론적 지평을 열어보임으로써 생태·환경 운동, 공동체 운동 등 신사회 운동의 이론적 동일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나키의 ‘상호 부조제의 한 공산적 자유’, ‘권력과 위계 없음’, ‘폭력의 거부’라는 대명제는 생태·환경의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한 번기대어 버린 매력적인 담론들을 포함하고 있다. 후기 산업 사회의 위기 증후는 허무적인 자조와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강한 긍정과 주체의 의지로써 회복될 수 있으며, 그런 방식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코 아나키즘은 ‘자본의 높은 언덕을 넘어 아나키 공동체의 견소 포박 見素 包抄 한 마을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성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 8. 결어

글을 마감하면서 1993년 여름 하 회 마을에서 있었던 학술 대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해 8월 14~15일 양일간 전국의 아나키즘 연구자 48명이 참가하여 학술 발표회를 가졌다. 논문 발표와 회의로 진행된 모임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밤에 있었던 노닥 불파티는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런데 2일째 하 오후 회의에 즈음하여 선생께서는 필자를 부르더니, “이보게, 구동지! 폐회에 앞서 ‘결정문’을 채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깜짝 놀라 “아니 무슨 결정문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했고, 참석자들과 의협의 한 후에 결정하겠노라고 얼버무렸다. 결국 선생의 “결정문 채택” 주장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때 필자는 사실 ‘결정문’이라는 말에 〈한국 아나키스트 하 회 선언〉 쪽으로 생각하고, 학술 행사에서 그런 발상을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으며, “지금 이 독립 운동하던 시대인가? 무슨 결정문을 채택한단 말인가!” 라고 불편하게 생각했다. 물론 지난 50년간 한국에서 아나키즘은 탁상 공론이 아니라, 강력한 실천적 무기로 인식되어 왔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생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신세대 아나키스트로서는 ‘당혹스러움’ 그 것이었다. 그 후에도 이 이야기는 종종 에피소드로 회자되었다. 필자로서는 당시 하 교수가 거창한 ‘정치적 선언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기록’으로 ‘흔적’을 남기자는 뜻이었을 걸로 이해하고 싶다.

지금 한국에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그것은 아나키즘이라는 유령이다! 이 유령은 그러나 혁명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중후군'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의 지성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하나의 '오래된 미래 기획'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세기에 실패한 귀신이 어째서 지금 더욱 복잡하고 정보화된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는가? 산업 사회 초기에 유럽에서 등장한 '아나키적 인 삶의 양식'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고무된다. 수의 부르주아 지들을 사로잡기에는 분명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아나키즘은 우리들의 추억 속에 '허무적인 테러나 극단적인 파괴주의'로 각인되어 들어왔다. 추억 속의 아나키즘을 우리는 한 동안 '무정부주의'라고 불렀었다.

시민 사회를 허물고 등장한 근대 국민 국가에서 권력과 지배권은 무한히 집중되고 있다. 권력과 폭력 수단인 집중은 자본주의적 '세계 기획'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선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의 정교한 조직 이론과 혁명 이론이 '자본주의적 세계 기획'에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카운터파트 counterpart였다. 자본의 팽창과 함께 증가하는 산업 예비군들, 그들의 혁명 역량에 기대를 걸고 마르크스도, 엥겔스도, 레닌도 내일 당장 장미빛 혁명의 아침이 오리라고 믿었다. 사실 19세기 유럽 노동 운동의 성실한 서기 書記 役을 자임했던 칼 마르크스는 그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역량을 너무 높게 평가했던 죄밖에 없다. 노동자 해방 운동과 결부되어 나타난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100년 생애는 그러나 우리에게 혁명의 찬란한 아침이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고, 현대 사회에서 권력과 폭력의 독점은 '카리스마적 권위'나 '완력', 혹은 '공장 굴복'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네트워크로부터 나온다. 정보화 사회에서 중앙 집중적 거대 권력은 급속하게 분산되고 있다. 수십만, 수백만 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 오직 하나의 목표 — '내일 아침의 혁명을 위하여'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 운동은 어떤 통일적인 목표도 지향하지 않는다. 바로 아나키즘의 원리이다. 주지하고 계시듯이, 아나키즘은 중심을 전복함으로써 하루 아침에 세상을 바꾸려는 혁명적 방법보다는 저변, 주변을 허무는 다중 심적 인 행위 규범을 선호한다. 페미니즘 운동, 환경·생태 운동, 반전·반핵 운동, 지역 분권주의 운동, 평화 운동, 소비자 운동 등 신 사회 운동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제 신 사회 운동을 위한 사회 이론, 그도 매상 역할은 낡은 '무정부주의'가 아닌 '신 아나키즘'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나키즘은 일원론으로부터 '다원론'으로, 대립과 갈등에서 '상호주의'로, 환원주의적 사고에서 '반 환원주의'로, 경쟁의 논리에서 '협동적 참여의 논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신 사회 운동과 논리적 정합성을 갖는다고 믿는다.

나는 인도주의적 아나키즘의 한 유형으로 '에코 아나키즘'을 신 아나키즘의 원류로 삼고자 한다. 크로포트킨이 선언하고 있듯이, 아나키즘은 사회를 배타적인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상호 협동하는 사회적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감히 "아나키즘의 사회 조직 원리는 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파괴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더욱 가까이서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존재의 고향 Heimat"이라

### 3. 하기락과 그 시대

헤겔의 말대로 "철학의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의 사상의 전모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알고 있듯이 하교수는 태어나서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일제의 식민지 지배라는 암울한 시기를 살았다. 그의 철학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고, 시대의 요구와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그러므로 그의 시대를 돌이켜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허유하기락교수는 1912년 1월 26일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에서 출생하여 1997년 2월 3일 향년 86세를 일기로 대구시 수성구 만촌 2동 990-73번지 자택에서 타계하였다. 하교수는 열여덟살이던 1929년 경성제2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북고전신) 3학년이었다. 그해 광주에서 학생 사건이 일어났고, 서울에서도 고보를 중심으로 학생 운동이 일어났다. 하교수는 제2고보의 시위에서 주동자로 찍혀 퇴학당하였다. 그 후 1년 동안 서울과 안의 안義를 왔다 갔다 하며 낭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년 후에 중앙고보 2학년에 편입, 1933년 졸업하였다. 그가 고보를 졸업하였을 때가 세가勢는 말아 아니었다. 하는 수 없이 낙향하여 2년 동안 농사일을 하게 된다. 1930년대에는 이미 국내에도 여러 아나키즘 단체가 만들어지고, 아나키스트들에 대한 일본의 탄압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 그가 아나키스트임을 내보인 흔적은 없다. 고보를 졸업한 지 식인청년이 농사나 짓고 있으니, 부모들의 강압에 못이겨서 둘러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러나 하교수는 "시골에 처박혀 있기에는 너무 억울해서"<sup>3</sup>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안의 출신의 젊은 아나키스트 하기락은 1935년부터 37년까지 일본 상지대학 예과를 마친 후에, 와세다 대학 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한다. 일본 유학은 하교수가 아나키즘에로의 길을 접어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유학 시절 내내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으로 일관했고, 결국 일생을 "아나키스트라는 이념적 표식"과 함께 했다.

1939년 12월 와세다 대학 조선인 동창회 석상에서 그는 다른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정책, 특히 창씨개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검속 檢束되어 3개월간의 구류 처분을 받는다. 기록에 의하면 "하기락은 작년 1월 거행의 동경 각 대학 전문학교 조선 학생 연합 졸업생 송별회에서 당국으로부터 조선 말 사용을 금지시킨 것을 통절하게 불만을 품고, 동지를 규합하여 이 반대 운동을 획책하고 작년 6월 중 淀橋區戶塚町 소재 喫茶店 松月堂에서 당시 와세다 대학 문학부 청강생(경성 이화여전교원) 한치진(韓稚振)의 환영회를 빙자하여 와세다 대학 문학부생 김연병, 이지인(李趾麟), 정인옥, 윤정병을 권유 합동하고, 이상의 문제를 토의한 결과 조선 민족 문화 옹호의 견지로부터 조선어 사용 금지 문제에 관한 학생의 여론을 환기시킬 것이라 하고, 그 후 검거에 이르기까지 재삼 민족 문화 옹호 철학 연구를 빙자하여 동지 규합에 노력하여 온 사실이 판명되

<sup>3</sup> 김정길, 「월간조선」, 인터뷰 기사, 1993년 6월호, 476-481쪽.

었다. 그리고경시청에서는본인등에대하여엄중히헌제한결과각성한바있으므로일단석방하였다.”<sup>4</sup>

대학을졸업한후 (1941년) 그는황해도재령에있는재령상업고등학교에교직자리를얻게되었다. 그러나한학기를마치고대학시절의아나키스트운동경력이문제가되어쫓겨나게된다. 하교수는당시를이렇게회고한다: “자주인사상으로봐도일제가보면불온한것이고, 무정부주의자라고봐도역시불온분자이니까봐줄턱이없지...”<sup>5</sup> 그는다시고향으로내려와서농사꾼이된다. 두어해뒤에해방이되었고, 다시황해도학교에복직을생각하기도했으나, 이미그때는 38 선으로분단되어마음대로되지않았다. 그래서그는부산에새로만들어진「자유민보(이신문은미군정당시경남도지사김철수가창간하였다)」라는신문의주필로취직을한다. 당시의시대상황이그러했듯이그는 2년을채우지못하고다시대구로옮긴다. 1947년《대구문리과대학(나중에대구대학교로이름을바꾸고청구대학과통합하여현재의영남대학교로된다)》에잡시자리를잡았다가 1953년고병간박사(당시는전쟁중이라, 임시수도가부산에있었고, 고병간의대학장은문교부차관을겸하고있었다)의초빙으로경북대학교문리과대학철학과에자리를잡았다. 그로부터 18년간경북대학교철학과에재직하게된다.

하교수는 1947년에재직할당시유림(柳林) 선생이조직한《독립노동당》에가담하여기관지「독립노동신문」을편집한적이있고, 경북대학교를퇴임한직후인 1972년에는《민주통일당》을주도하고있던정치인양일동씨의요청으로 1년간정책위의장직을맡은적이있다. 선생의생애에서현실정치가가장깊이발을들여놓았던시기이다. 양일동씨와는일부유학시절부터절친한사이였다.<sup>6</sup> 그러나하교수의현실정치참여는오래가지못했다. 1974년그는계명대학교로 옮겨학문활동을계속한다. 교수로서의그의학문활동은계명대학교철학과에서마친다. 정년퇴임후에도하교수는효성카톨릭대학(현대구가톨릭대학교-편집자주) 등에서계속강의를하였으며, 활발한저술활동도계속하였다. 1963년선생은《한국칸트학회》를창립하였으며, 이는현재의전국규모의《대한철학회》로발전하였다. 1947년부터 1997년임종까지 40년간의학문활동을통해선생은많은논문과저서를남겼다. 하교수는한국의제 1세대철학자로서철학적엄밀성을잃지않으면서도, 사회운동가로서의열정을쏟았다.

<sup>4</sup> 독립운동사자료집 13, 『학생독립운동사』, 1178-1185면, 인용은 『한국아나키즘운동사』, 대구: 형설출판사 1978, 428쪽.

<sup>5</sup> 김정길, 「월간조선」, 인터뷰기사, 1993년 6월호, 477쪽.

<sup>6</sup> 양일동은박정희의 5·16 쿠데타정권에의해 10여년간정치규제에서묵여있었다. 1972년해금된그는 2월정화암, 하기락등과규합하여“자주·민주·통일”의원칙하에《민주통일당》을조직하였다. 당위원장은양일동이었다. 그러나이당은다시 10년이못되어전두환군사정권에의해와해된다.

## 7. 결별: 새시대의아나키즘을위하여

우리는하교수의자주인철학을넘어서야한다. 그것은시대에뒤진것이어서가 아니라, 하교수의아나키즘이안고있는이론적인계때문이다. 아나키즘은역사속에서한번도주류에속해본적이없다. 유럽에서아나키즘은 19세기사회개혁운동의한영역으로등장하였다. 이는노동운동과사회주의운동과밀접한연관을가지고있다. 일제하한국아나키스트들은이런사회관계적맥락을무시하고, 아나키즘을민족해방운동에적용하였으며, 해방후에는현실정치의힘의관계내에서자신의위치를정하고자했다. 그러나일제하에서의민족해방투쟁은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할수있는면이있지만, 해방후의정치적행위들은번번이실패하였다. 더욱문제인것은그실패가마치훈장인양기록되어“운동사”라는이름을붙이고있다는점이다. 물론실패의기록도성공사례만큼이나중요하다. 그러나‘기록으로남기기위한실패’는용납할수없는것이다. 필자는한국아나키즘운동사를보면서무수히많은‘기록남기기행위들’에실망하지않을수없었다.

또한가지한국아나키즘의편향성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윌리엄고드윈이나막스슈티르너, 크로포트킨에게큰영향을주었던란다우어의개인주의적아나키즘사상은전혀언급되지않고있으며, 대부분의아나키스트들은사회적아나키즘<sup>26</sup>만을논의해왔다. 사회를단순히개인의집합으로보는원자론적관점(슈티르너), 그리고미국아나키즘의한흐름으로소로우(H.D. Thoreau), 휘트먼(W. Whitman), 워렌의논의는완전히무시되고있다. 개인주의적아나키즘은고전적인자유주의의이념과흡사한데, 한국에서는개인주의적아나키즘의실득력있는형이상학적논변을무시한다. 사회적아나키즘은자유, 선, 정의, 의무등개인과도덕의문제를적극적으로해명하지못하는한계를그냥떠안고있다. 물론막스슈티르너의극단적으로이기적인아나키즘이사회문제를해결함에있어서많은한계를가지는것이지만, 한국아나키즘은앞으로개인과사회의도덕적갈등을해소함에있어서고드윈식의절충이필요하다고본다. 본고는아나키즘이론을소개하는자리가아니므로고드윈, 슈티르너, 란다우어의아나키즘에대한논의를길게끌고가지는않을것이다.

나는아나키즘을정치적기제 mechanism 로보는데반대한다. 최근들어아나키즘이세간의주목을받는이유도정치적기제로서가아니라, 아나키즘이‘시민공동체적삶의원리’로서의가능성을보여주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새로운시대의아나키즘은그런방향에서재정립되어야한다. 아래에서는새로운시대의아나키즘, 그대강을밝히고자한다:

<sup>26</sup> 상호부조적아나키즘(mutualist anarchism), 집단적아나키즘(collectivist anarchism), 공산주의적(공동체적) 아나키즘(communist anarchism), 아나르코생디칼리즘(anarcho-syndicalism) 등을들수있다.

피터크로포트킨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을가리킨다.-편집자주)의 『근대과학과아나키즘』은 1973년이을규선생이창문각에서출판하였다. 이책의편집역시하기락선생이편집을맡았고, 〈편집후기〉에서선생은이렇게말한다: “역자회관(晦觀)이을규선생은우리나라의아나키즘운동의개척자요지도자중의한분이다. 편집자는일찍이중학시절에선생의은후한인격과고매한사상에깊은인상을받았으며, 항상흠모의정을잃지않았다. … 편자(하기락)는고인(이을규)의사위趙漢鷹동지와함께선생에게서입은은의恩誼에보답하는마음으로편집과교정에임했다.”<sup>24</sup>

그런데이책역시또다른운명으로부활한다. 1993년부산의신명출판사에서『근대과학과아나키즘』<sup>25</sup>이라는제목으로재출간한것이다. 물론역자는하기락이다. ”고매한사상에깊은인상을받아중학시절부터흠모해온선생”의번역원고를한자를한글로바꾸는것 말고, 전혀새롭게다듬은흔적도없이자기이름으로재출간한것이다.

이책이출간될무렵필자는박연구씨로부터푸념하는소리를들은적이있다. “하교수가번역서를내는데, 샘돌고프(Sam Dolgoff)의논문한편을번역해달라”고주문하였다는것이다. 당시박연구씨는뉴욕시립대학박사과정수를료하고잠시대구에머물때였다. 기이하게도한권의책에두사람의글이들어있는이번역서는출간 5년밖에안되었음에도지금그어디에서도찾을수없는잊혀진문건으로사라지고말았다. 기왕재출간하려면크로포트킨의주요논문인〈아나키즘의도덕〉을포함시켰어야할텐데(이을규번역본에는〈아나키즘의도덕〉이들어있다) 중요한논문은삭제하고있다.

필자가지난간이미오래된책의표절여부를시시콜콜따지는것은두가지의미를함축하고있다: 첫째, 하교수의이런‘책만들기’가혹시철학자로서의학문적엄밀성을훼손하지않을지염려하는것이고, 둘째로는후세대아나키즘연구자들이하교수가이룩한연구성과를뛰어넘어새지평을열기위해서는먼저간이의오류를반복하지말자는자성의의미도담겨있다. 하여간하교수의아나키즘관련저서와역서를보면서지난 60년간한국아나키즘의질곡의역사를보는것같아아쉬웠다. 하지만지난 60년간한국아나키즘의살아있는역사로자리매김되어온하교수의위상은확고하다하겠다. 필자의비판은그의아나키즘운동사와이념사에서그가차지하는위상과역할을훼손하려는의도는아니다.

<sup>24</sup> 피터크로포트킨/이을규역, 『현대과학과아나키즘』, 서울: 창문각 1973, 218 쪽.  
<sup>25</sup> 피터크로포트킨/하기락역, 『근대과학과아나키즘』, 부산: 신명출판사 1993. 이책에는샘돌고프/박연구역, 『현대산업사회와아나키즘』이라는 30 쪽정도의논문이함께실려있다.

## 4. 1930 - 40 년대한국아나키즘과하기락

앞에서필자는하교수의생애를연대기적으로살펴보았다. 이를토대로필자는30-40 년대한국아나키즘의이론적지평과하교수의활동을살펴보고자한다. 필자가 30 년대이후국내에서의아나키즘연구와실천적활동에국한해서다루려는이유는첫째; 1920 년대한국내에서의아나키즘연구및실천투쟁은몇몇의선구자를제외하고는사회주의라는큰틀내에서공산주의와혼재하고있었으며, 아나키스트라고자처하는사람들조차도공산주의와아나키즘에대한분명한구분의식이없었기때문이다.<sup>7</sup> 둘째; 하교수와관련된논의만이본고의주제이므로선생이나나키즘에대한분명한입장을표명한시기가 30 년대이후라여겨지기때문이다.<sup>8</sup>

먼저 1930 년대한국내에명백히아나키즘이론에근거한연구단체혹은항일무장투쟁조직이있었느냐를살펴볼필요가있다. 30 년대는일제의만주정벌로조선반도는일제의병참기지화하고있었다. 조선내의모든사회운동은극도의탄압에시달리고있었다. 이시기까지한국아나키스트들은더러는옥사하고, 많은선구자들이감옥에있었다. 단재신채호선생은여순감옥에, 이정규, 이을규형제와유림(柳林)은중국에서국내로송환되어왔다. 《이천자유회》, 《창원흑우연맹》, 《제주도우리계》, 《진우연맹》,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등에가담한많은투사들이투옥되어국내의아나키스트진영은전멸한상태였다.

광주학생사건이나나키스트들에의한항일운동은아니었지만, 하교수가아나키즘운동사에최초로등장하는것은 1929 년서울제 2 고보소요사태이다. 18 세의 2 학년이던하기락은하공현(河公鉉) 과함께제 2 고보에서광주학생운동의여세를몰아서울에서학생운동을계승하고자선두에나섰으며, 그로인하여퇴학처분을받게되었다. 이는아나키즘과는무관한사건이지만, 신채호의〈조선혁명선언〉, 또일본에서의박열의활동(박열은 1923 년동경지진당시“불령사不逞社대역사건”으로복역중이었다) 에관해소상히알고있었던그는이미아나키즘적저항의정신이깃들어있었음이분명하다. 1939 년일본유학시절에도비슷한사건을겪게되는데, 앞에서소상히밝힌바와같이 1939 년 12 월와세다대학에서있었던“조선인졸업생송별회사건”이다. 이시기에한국에는이미프루동, 바쿠닌, 크로포트킨등고전적아나키즘이론가들의문건이번역소개되고있었다. 한글로번역되지않은문헌들은일본어로번역되었으며, 대부분의지식인들은이들문헌을접할수있었다. 아나키즘연구는철학자나실천가들보다는, 주로문학자들, 문예운동가들사이에서일어났다. 권구현(權九玄) 등쟁쟁한아나키즘이론가들이등

<sup>7</sup> 이에대해서는오장환, 〈1920 년대초기국내사회주의수용기의아나키즘경향에관한일고찰〉, 자유사회연구회편, 『아나키즘연구』, 1 호 (1995), 57-81 쪽참조.

<sup>8</sup> 1925 년 9 월에대구에서결성된《진우연맹》은명백히국내최초의아나키즘연구단체이다. 1928 년의“진주아나키스트사건”, 29 년의《마산아나키스트그룹》과《창원흑우연맹》등 20 년대에일어난크고작은아나키즘관련사건은선생과의직접적인연관이없으므로본고에서는다루지않는다.

장하면서문학에서아나키즘과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논쟁이시작되었다. 소위아나키즘문학과부르주아문학간의논쟁이그것이다.

한국에서프로문학의대두는 1920년대중반이다.<sup>9</sup> 아나키즘문학은당시까지만하더라도프로레타리아문예운동내에속해있었다. 박영희, 한설야, 임화윤 기정을중심으로한프로문학이강해지자, 이항, 홍의등은아나키즘문학이론으로 이어저항하면서논쟁은시작된다. 권구현은프로문예 = 마르크스주의라는등식을거부하면서“프로문예중에아나키즘문예와불세비즘문예의대립을예상해볼 수있다. 공산주의자가자신의인생관내지는사회관에입각하여무산계급문예를 수립할수있다면, 아나키스트역시그의사상적견지에서무산계급예술을수립 할수있을것”<sup>10</sup>이라고지적한다. 권구현은아무리무산계급문예라하더라도, 예술활동이예술의본질을벗어나는것이어서는안되며, 특히사회혁명의선전도구로전락하는것에반발한것이다. “아나키스트는결코집단을무시하지않는다… 그러나아나키스트는자연적인법칙에순응하는개성의자유를고조하며불세비키 들처럼무산계급을의식적으로외세의강권에의하여불세비즘의범주내로도입코 자하지않는다. 가장자연스러운자유연합사회를 … 형성코자함이아나키스트의 최대안목이다.”<sup>11</sup>

프로문학에대항한권구현의아나키즘문학론은한국의아나키즘이론을한층 정교하게하는데기여했다. 넓은의미로는사회주의와아나키즘, 좁게는불세비즘 과아나키즘이론간의구분이불분명하던시기에권구현은불세비즘역시억압적국가기구를폐지하는것이아니라, 부르주아에의한지배를프로레타리아에의한지 배로바꾸는것에불과하다는사실을간파함으로써“자연법칙에순응하는개성의 자유를강조하여이에따른자유연합사회를건설하는것”<sup>12</sup>이아나키즘의최대목 표라고규정하게된다.

## 5. 해방후의활동과 ‘자주인철학’의정초

하교수가아나키즘사상에경도된것은아마도고향안의의사상적분위기와무관치않은것같다. 당시안의에는이름난아나키스트들이많았다. 1926년대구의진우연맹사건의주모자들대부분이안의출신이었다(신재모, 하중진, 하경상, 김정근등이이고장출신이다). 나이로보면 7~8년위인선배사회운동가들로부터 선생은자연스럽게아나키즘사상에경도되게되었을것이다. 그러나본격적으로

<sup>9</sup> 1925년의결성이그시발이다.

<sup>10</sup> 조선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 전편, 민족해방투쟁』, 대구: 형설출판사 1978, 203 쪽.

<sup>11</sup> 위와같은책, 208 쪽.

<sup>12</sup> 위와같은책, 212 쪽.

년 7 월부터정화암, 최갑룡이경기도수원근교신갈기도원에서침식을함께하며(원고정리를) 감행했습니다. 1977 년봄에는서대문구역촌동여관방에서(원고) 정리를마치고같은해 7 월에하기락에게일체수집된(원고) 를넘기고편집을부탁했습니다.”<sup>22</sup> 이말로미루어보건대원고는최갑룡과정화암이주도적으로정리 하였고, 상당히정리된원고를하기락에넘긴것같다. 이런문제를제쳐놓고라도 『탈환』 이 『운동사』 에비해더세련된역사적서술방식을취하고있는것도, 새로운사실이추가된것도아니라는점이다.

문제는여기서그치지않는다. 일단한번표절한책을선생은다시한번제목을바꿔 『자기를해방하려는백성들의의지』 로재탕하고있다. 다시말하면최초의원 고가누구로부터나왔건간에, 분명한것은하교수개인의원고가아니었다는사실 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그원고를토대로세권의책을생산해냈다. 10 여년 전부터아나키즘에관심가져온필자로서도이미그당시부터이저작의이런운명을 알고있었다. 하물며동년배동지들이몰랐을리없다. 선생은왜이런얼굴없는책을 만들었는지, 또이책과관련된당사자들이동일한내용의책을두권더퍼내는것에 동의해주는지필자로서는헤아리기어렵다.

『한국아나키즘운동사』 의〈편찬후기〉에는“이책은개인의사적저작이아니라, 운동에참여했던여러동지들의공동작업으로추진되었다”고명시되어있고, 또책의저자역시편으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서문〉 은하기락교수가쓰고있다. 편찬위원회는소위원회를만들었고, 여러차례회의를했다. 그러나그명단에는하기락이라는이름은한번도등장하지않는다. 더욱이 100 쪽이넘는〈서장〉 은분명하교수가집필한것인데, 『운동사』 에는어울리지않는‘이념사’를다루고 있다. 이〈서장〉 은그자체로서작은‘아나키즘이념사’인데, 왜이문건이 『운동사』 에포함되었느냐이다. 편집위원회의에참석한사람들은위원장정화암(鄭華岩) 을비롯하여, 양일동(梁一東), 양희석(梁熙錫), 최갑룡(崔甲龍), 이정규(李丁奎), 이을규(李乙奎), 신기초(申基礎), 이홍근(李弘根), 김재현(金在炫) 등이었다.

『운동사』 의이런운명은이책의아나키즘관련저작이전무하던시대에나왔다는점과, 중요한사료적가치에도불구하고 16 년만에재판하는부진을면치 못하게된원인이아닌가싶다. 책은스스로운명을가지고태어나지만, “철학이그이론을회색에회색을덧칠하면삶의모습은이미늙은것이며, 젊어지지않는다(Wenn die Philosophie ihr Grau in Grau malt, dann ist eine Gestalt des Lebens alt geworden, und mit Grau in Grau läßt sie sich nicht verjüngen, sondern nur erkennen)”<sup>23</sup>는괴테를변형시킨헤겔의현학적인 표현을떠올리게된다.

<sup>22</sup> 최갑룡, 『어느혁명의일생』, 대구: 이문출판사 1995, 67 쪽. 괄호안은필자추가.

<sup>23</sup> G.W.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Suhrkamp Werke Bd.7, Vorrede S.28.

수의거의모든저작이뒤죽박죽으로섞여있고, 같은내용이계속반복되고있어서 혼란스러움을금지못하였다. 『탈환』(1985)의〈후기〉는『자기를해방하려는 백성들의의지』(1993)에반복된다. 8년전의〈후기〉를왜다시전재하는지, 그간아무런상황변화도없었다는것인지의아스럽다. 그럼에도전재했음을밝히는문구는어디에도없다. 하교수는『탈환』을펴내면서“1978년『한국아나키즘운동사』전편을내면서‘후편도계속간행코자한다’고예고해놓고아직까지실행에옮기지못하고있으므로… 우선잠정적으로운동사전체를오늘에이르기까지간추린약사로서이에대충코자한다.”<sup>18</sup>고적고있다. 탈환은《한국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가약속한후편을만들지못하고있으므로자기가개인적으로후편을펴낸다는뜻이다. 그런데내용은 7년전에나온『운동사』와대동소이하다. 엄밀한의미에서『운동사』는《한국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sup>19</sup>의저작이다.

정화암, 최갑룡등이하기락에게넘긴자료가어느정도정리된것이었느냐, 아니면신문스크랩, 녹취한테이프정도였다면하교수의 1985년판『탈환』은『운동사』를표절한것은아니라는주장이가능하다. 그런데만약 1977년 7월하교수에게넘어간원고가상당히진척된수고手稿의상태였다면표절이라는주장이가능하다.

여기서이책이만들어지기까지의내막을잠시살펴보자: 사실『한국아나키즘운동사』를편찬하기로한것은정화암의생각이었고, 출간 15년전에이미계획된 것이었다. 1963년 12월 22일돈암동진흥장에서열린송년회에서결의된사항이었다. 1967년 1월제 8차회의에이르기까지하기락의이름은등장하지않는다.<sup>20</sup> “1977년여름신문자료를수집한세권의노트와최갑룡이정리한세편의‘자료정리원고철’, 기타를모두하기락에게넘겨서조선무정부주의운동사를집필토록하였다. 1978년 3월 1일하기락은이운동사전편(8.15 이전)을탈고하였다. 하기락은같은달 5일정화암, 최갑룡, 고성희이지할, 김한수, 박기성등을청운아파트 1동 307호자택으로초청하고, 『조선무정부주의운동사전편』의탈고脫稿를보고했다. 회합한동지들은이를접수하고본편찬위원회에서직접발행키로합의했다.”<sup>21</sup>

이상의표현으로보아하교수에게넘어간원고는‘관련자료’수준이아니라, “정리된원고철”이며, “수고手稿노트”이다. 1978년 9월 23일에서개최될출판기념회에서최갑룡의경과보고에도잘드러나고있다: “원고가완결되기까지 1976

아나키즘을표방한시기는해방을전후한시기가아닌가싶다. 여기서는하교수가아나키즘을자신의‘자주인철학’으로체화體化해가는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아나키즘의전통을간략하게살펴보자: 아나키즘은매우광범위하다. 본고에서논하는아나키즘은프랑스혁명후프랑스를중심으로나타난사회사상을일컫는다. 정통파아나키즘은윌리엄고드윈(W. Godwin)의『정치적정의』(1793)를시작으로프루동, 막스슈티르너(M. Stirner), 구스타프판다우어(G. Landauer, 1870-1919), 바쿠닌, 크로포트킨, 톨스토이, 워렌(Josiah Warren), 터커(Benjamin Tucker)로이어지는사상적전통을가리키는말로이해하고자한다. 여기에는개인주의적경향과사회적경향이혼재하고는있지만, 그것이서로단절된전통으로부터나온것이아니라, 연속적인발전의산물이라는점에서하나의전통으로이해할수있다.

이주류아나키즘사상은(1) 개인의무제한적자유보장, (2) 이를위해무국가사회의실현, (3) 인류의행복과번영을위해개인의창의성과자발성의최대한보장, (4) 국가로부터비롯되는모든제도와위계질서의부정, (5) 개인의자발적도덕성에대한믿음, (6) 그러므로인간의자유와평등을제한하는세가지죄악인국가, 종교, 경제제도를거부하는것등으로요약할수있다. 이중에서도국가가제 1의타도대상인바, 아나키즘에의하면국가는 ① 원래가약자를착취하려는강자의욕구의표현이므로, 인민전체의복지를위해존재하는것이아니라, 인민의지배를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한강제적실체이다. ② 국가는필연적으로계급성에기초하여각종제도와법규를만들고, 이를통해생존권과욕망을통제하는착취적수단이다. ③ 국가의존재는최고의인륜성을실현하는현실태(헤겔의생각처럼)가아니라, 인민의자발적도덕을파괴하는파괴적실체라는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국가의본질이좋은것이아니나쁜것이냐를놓고논쟁한것이아니라, 국가권력을탈취할것이냐, 파괴할것이냐를놓고싸웠다(가장대표적인예가마르크스와바쿠닌간의논쟁이다). 이처럼아나키즘과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는그근본부터가달랐음에도초기아나키스트들은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자들사이에서도아나키즘이사회주의의아류로인식되면서그독자적인사상적기반을갖추는데어려움이많았고, 아나키즘이역사적으로“잊혀진몽상가의추억”으로인식되게된가장결정적인원인이되었다.

하기락의아나키즘은이런전통으로부터출발하여, 그가살던시대의요구에따라수정, 변형된아나키즘사상을발전시켜왔다. 필자는이를‘자주인철학’으로이해하고자한다. 그의말을들어보면: “자기스스로자기의주인이되고자하는사람을‘자주인 libertarian’이라부른다. 권위나군력을가지고남을지배하려는사람을권위주의자 Authoritarian 라한다. 이두종류의인간은서로용납이안된다. 권위주의자를혐오, 배격하고자주인다운생활을관철하려는입장을취하는사람

<sup>18</sup> 하기락, 『탈환』, 대구: 형설출판사, 3 쪽.

<sup>19</sup> 저작자는《조선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인데책의제목은『한국아나키즘운동사』이다. 이런통일되지않은용어를쓴것으로보아서원저작자들은‘무정부주의’를, 하기락은‘아나키즘’을주장한것같다.

<sup>20</sup> 최갑룡, 『어느혁명의일생』, 대구: 이문출판사 1995, 64-66 쪽.

<sup>21</sup> 조선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 전편, 민족해방투쟁』, 대구: 형설출판사 1978, 459 쪽. 이기록은위원장정화암의명의로되어있다.

을아나키스트라한다.”<sup>13</sup> 필자는하기락의아나키즘을“자주인철학”으로개념화하고자한다. 아나키스트들사이에서‘자주인’이라는용어가사용되기시작한것은1972년《한국자주인연맹》의창립과더불어서이다. “우리는각자자기를주재하는자주인이다. 우리는자주인의자유지로연합한자유로운사회를건설코자한다. … 모든인간의주권은평등하다. 이권리는누구도침범하지못한다. 우리는다스리는자와다스려지는자로인간을구별하는일체의정치적관념을부정한다.”<sup>14</sup> 당시자주인이라는표현을쓰게된것은아마도유신이라는현실정치적조건때문이었을것이다. 스스로를아나키스트라부르기에는여러가지제약이있었을것이다.

자주인사상은1987년제4차대회에서더욱구체화된다. “우리는다수자의노동성과를소수자의재산축적의수단으로만드는현재의경제체제의개혁을촉구한다. 이는수탈된것의탈환을의미하는것이다. … 위계제도적관료독선은산업의발전을유효하게합리적으로관리할수없다는실증을보여주었다. 산업의운영은직업별, 직장별산업종사자들의지역평의회와이들이서로연합한중앙협의회에의해담당되어야한다. … 근로대중의산업의자주관리를요구한다.”선생이발표한이개회사는다분히초기공산주의적생각과일치하는점이많이었다. 20세기유럽노동운동의핵심적인쟁점은‘공장평의회’와‘산업의자주관리 Autonomie der Industrie’였다. 이개회사에도똑같은말이 나온다. 자주인은그러나공산주의자와달리‘국유화’를주장하는것이아니라, 산업의‘사회화 Sozialisierung’를주장한다.

또한하교수의어떤글에도‘군비축소’주장이빠진적이없다. 60년대이후선생은자주인의철학에평화주의를포함시킨다. 이는1988년10월“세계평화를위한국제학술회의”로이어진다. 투자한열정에비하면실패한행사는평이지배적이지만, 세계적인아나키스트들이한국에모일수있었던것은선생의추진력이아니었으면어려웠을것이다. 발제강연에서그는“나”라는한인간이인간으로서최고의가치를지녔다면, ‘너’라는인간도또한인간으로서최고의가치를지닌자이다. 여기에있어서비로소각인이만인의자유를존중하고만인이각인의자유를보장하는‘아나키’사회가실현될수있는것이다. 이리하여인간중심사상은곧사회주의로통하는길이다. 평등은사회적정의의필수조건이고, 사회적정의에있어서비로소만인의자유가보장되는것이다.”<sup>15</sup> 이글에서도‘군비축소’와‘노동자에의한산업의자주관리’도거론된다.

<sup>13</sup> 조오지우드코크/하기락옮김, 『아나키즘 — 사상편』, 대구: 형설출판사 1981, 번역자서문.

<sup>14</sup> 하기락, 『자기를해방하려는백성들의의지』, 부산: 신명출판사 1993, 강령. 353-4 쪽.

<sup>15</sup> 위와같은책, 399-400 쪽.

하교수가공식적인자리에서발표한마지막글인〈역사의발전과인간의해방〉<sup>16</sup>에서도동일한주제로결론을삼는다: 자주인은“지역과직장이구성원상호간의자유와자유함의에따라자율적으로자치되는사회를추구한다. 이바탕위에서 … 인간의다양한사회적욕구를충족시킬목적으로각종의자율적협회가충분히그기능을발휘할수있어야한다. 나라전체는이와같은모든지역, 직장및각종협회의자율적자유연합의원리에따라구성되는사회가아니면안될것이다. 그렇게우리는나라전체의일을조사, 통계, 계획하는사무기관을배제하지않는다. 그것은백성을다스리기위한통치기관이아니라, 백성들자신의자치적사무기관이다.”<sup>17</sup> 그는아나키즘의자치원리를절묘하게표현하고있다. 제레미리프킨이『노동의종말』에서강조하고있듯이, 국가의강제는사회의제3영역(공적영역)의강화를통해해소할수있다는주장은이미하교수의이글에서도드러나고있다. 건강한사회는지역, 직장, 협회가자율적으로연합한형태로운영되어야한다는것이다. 국가를부정하는것이아니라, 공적영역의확대와더불어자율적자치기관으로변해야함을말하는것이다.

자주인철학은크로포트킨으로부터유래한것이다. 일제강점기를거치면서자주인사상은민족주의이념과결부되어항일무장투쟁의이념이되었다. 한국아나키즘이강한민족주의적색채를띠게된것은명백히일제의식민지배때문일것이다. 하교수의자주인철학역시민족주의로부터나온것이고, 이는무정부주의운동에강력한이념적공감대였다. 그러나민족주의때문에한국아나키즘은해방후에도발목이잡혀있었다. 필자는하교수의자주인철학은그것이민족주의적배후에의존하는한아나키즘본래의의도와는배치되는것일뿐만아니라, 사회이론으로서아나키즘의발전을기대할수없다.

아나키스트는조직을거부한다고즐거워말한다. 그러나해방후한국아나키스트들은두사람이모이면조직을만들고, 회장이라는이름을감추고‘대표간사’를선출하고, 강령을채택하고, 선언문을낭독하는계몽주의적인정치적세리머니를즐거워했다. 이제하교수가제창한자주인철학은2세대신아나키스트들에의해이론적으로새롭게단장되어야하며, 공적영역의논변이아니라, 생활세계의의사소통적담론으로자리잡아야할것이다.

## 6. 하기락의 책만들기

책은각자의운명을타고난다(habent sua fata libelli). 하교수가떠낸책은여러모로기이한운명을타고났다. 본연구를위해문헌을섭렵하면서필자는하교

<sup>16</sup> 〈역사의발전과인간의해방〉. 이글은1995년5월13일이화여대에서열린광복50주년기념학술발표회에서조발표한원고임.

<sup>17</sup> 하기락, 〈조국통일발의문〉, 별쇄본 91 쪽. 이런표현은이미『한국아나키즘운동사』의〈서문〉에도나온다.